

1950년대 국가주의 담론과 청년문화*

- 박화성 소설 「고개를 넘으면」을 중심으로 -

최 창 근**

〈차 례〉

1. 서론
2. 국가주의 담론과 대학생
3. 신·구 갈등과 사랑의 정치학
4. 우정과 개인주의
5. 결론

1. 서 론

박화성은 1903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여성 소설가로 1925년 단편 「추석전야」가 춘원 이광수의 추천으로 실려 문단에 데뷔하게 된다. 이후 「하수도공사」, 「백화」, 「북국의 여명」 등 다수의 장·단편 소설을 쓰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작가로 성장한다. 특히 그의 소설은 일제 시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들의 고난과 궁핍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박화성의 소설은 그 성격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박화성 소설 연구-1950~60년대 소설의 담론적 실천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2012)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전남대학교 시간강사

이 크게 변한다. 해방이후 소설들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와 계급갈등의 약화이다. 해방 후 박화성 소설의 배경은 대부분이 중산층 가정이며 내용도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박화성이 대중 소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이다.¹⁾ 이 시기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았으면서 한편으로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는 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싹트기 시작한 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는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모아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공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가치를 추동하는 사상이 바로 국가주의이다. 박화성의 소설에서도 이 국가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때 동반자작가였으며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던 박화성의 변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방 후와 6·25를 거치며 겪은 작가 자신의 경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순히 개인의 경험 차원을 떠나 당대 사회의 제반여건에서 변화의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²⁾ 이를 위해 「고개를 넘으면」과 그 외 박화성의 소설들은 1950년대 사회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살피는 데 적절한

1) 박화성의 해방 후 첫 장편소설 「고개를 넘으면」은 1955.8월부터 『한국일보』에 게재되었다.

2) 박화성의 자전적 소설 「눈보라와 운하」를 살펴보면 박화성의 가족은 6·25가 발발하고 나서 인민군에게 상당한 고초를 당한 것으로 묘사된다. 남편이 일제강점기때부터 상당한 재력가였던 탓에 인민군에게 반동으로 몰렸으며 집안의 상당한 재산을 몰수당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민군에게 살해위협을 받거나 가까운 친척이 끌려가 죽기도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 박화성 소설이 지니고 있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담론형성 과정과 특성을 분석해 그 안에 들어있는 시대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나아가 소설 속 대학생의 모습과 당대의 현실을 비교하고, 대학생의 형상화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함께 분석하려 한다.

2. 국가주의 담론과 대학생

박화성의 소설이 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 1950년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부족한 시기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한사회의 사상적 스펙트럼은 민주주의라는 협소한 벽 안에 갇히게 된다. 민주주의는 낯선 정치체제였으며 부정과 관권선거 같은 부작용이 판을 쳤다.

반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담론이었던 반공이데올로기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반공은 주요한 국가적 담론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반공주의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는, 억압과 금지를 행사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권력자에게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당하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폭력일 뿐이었다.³⁾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란에 빠지고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국가주의다. 국가주의는 반공을 내세우며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반공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 이유 없이 민족공동체 내부의 다른 일방을 적대시하는 지향이기에 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무의식

3) 김건우, 「1964년의 담론 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72쪽.

적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모순적 인식을 갖게 했다는 점이다.⁴⁾ 이때 국가주의는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국가와 국민으로 한정시켜 북한을 동족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적대적 국가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탄생시켜 국가수호와 반공을 동일한 가치 아래 통합시킬 수 있었다.⁵⁾ 6·25를 통해 강화된 국가주의는 이후 1950년대를 관통하며 충성스러운 국민을 배출했다.

그러나 국가주의에서 힘의 우위는 언제나 국민이 아닌 국가라는 초월적 존재이다. 국가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관계, 또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개인 및 사회에 대해 국가의 우위성과 주도성을 전제한 가운데, 국가가 최우선의 가치와 규범으로서 강조된다.⁶⁾ 이는 근대국가가 국경의 물리적 현존을 토대로 국적이라는 ‘국민됨’의 생사여탈권을 준 유일한 주권권력으로 표상되는 것에 기반한다.⁷⁾ 국가는 ‘국민’이라는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권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통치한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는 철저히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형성하고 취득하게 된다.

박화성의 소설 「고개를 넘으면」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투영된 소설이다. 등장인물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젊은 남녀들이 전깃불이 나가자 국가의 전력난과 해결방안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온다. 전력은 근대화 이후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요소이다. 중공업분야가 북한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

4) 조희연,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004, 165쪽

5) 한경희, 「중군시에 나타난 국가주의의 시선-김종문 『벽』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408쪽.

6) 전재호, 「세계화 시대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권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2, 50쪽.

7) 공임순, 『스캔들과 반공국가주의』, 앨피, 2010, 62쪽.

하에서 분단은 남한 산업발전의 근본적 위기를 불러왔다. 따라서 산업 발전은 체제수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즐겁게 놀며 여흥을 즐겨야 할 생일파티 자리에서 전력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다소 무거워보이는 화제임이 분명하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일본은 현재 칠백 만 ‘킬로’의 발전량을 확보하면서도 앞으로 그 배량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팔천 만 ‘킬로’를 돌파한지 벌써 오렐 뿐 아니라 이제는 화력과 수력의 발전시대를 지나 원자로에 의한 원자력 발전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들의 칠십 분지 일이나 팔백 분의 일에 해당하는 아주 미약한 수량입니다. 그런데 이거나마 정상적인 확보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까닭입니다.”

- 「고개를 넘으면」⁸⁾

청년들은 특히 발전량의 차이와 국력을 연계해서 논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일본과 미국의 월등한 발전량과 우수한 산업 발전의 상황을 조국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국가의 위기상황을 환기시키고 있다. 국가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이면에는 위기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그들의 희생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위기는 그것이 실제로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또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기로 포장하는 것이 위기담론의 전형적 모습이다. 위기담론은 위기 극복을 이유로 사회구성원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요구하고 강제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여타의 주장은 표현이 억압되거나 중지된다.⁹⁾

8) 박화성, 『박화성 문학전집 3』, 푸른사상, 2004, 51~52쪽. 이하 전집 권수와 쪽수만 표기한다.

9) 정호기, 「이승만 시대의 위기 담론과 위기대회」, 『사회와 역사』 84, 한국사회사학회, 2009, 183쪽.

소설 속 청년들은 생일 축하 모임에서의 토론에 스스로 만족해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교양을 쌓는 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이는 사적영역에서 공적담론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개인들의 사생활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모임을 통해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금욕적 태도이다. 그들에게는 사적 욕망도 철저히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부합해야만 했다.

“글쎄 오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니깐요. 그런데 오빠 두 말 없이 반대하실 거예요. 오빠 요새 한국의 남녀 학생들은 유학병에 걸려서 내 나라를 등지고 미국으로만 갈려고 한다고 분개하셔요. 그 중에 진실한 학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명예와 허영에 들렸고 또 한번 가기만 하면 남의 나라의 고급 생활이나 공경하고 본뜨려고 하면서 내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는 눈감으려고 한다고 말끝마다 비난하는데 글쎄 내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함 좋을지 몰라요.”

- 「고개를 넘으면」¹⁰⁾

이들의 대화에는 유학이 나라를 등지는 행위로 허영에 들뜬 젊은이들의 선택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유학을 가려는 청년들을 유학병에 걸린 환자로 규정하면서 순수한 개인적 욕망을 규제하고 있다. 유학은 국내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거나 미비한 상황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해 하는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 입각해서 결정돼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압력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조국의 현실을 눈감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없다.

「고개를 넘으면」은 이처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대학생이라는 존

10) 박화성, 『전집 3』, 272쪽.

재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치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가 당대 사회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보편적 이데올로기였는지 아니면 지배권력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포된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실제의 사회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설정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보편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우선 그들의 가정환경이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복한 편이며 또한 그들의 신분이 모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학과 대학원 또는 유학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¹¹⁾ 당시 한국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이정도의 생활의 여유를 가진 가정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¹²⁾

반면 당시 국민들 중에는 실업자와 빈민층이 상당수였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1955년 기준 완전실업자 수는 200만여 명에 달했고 그 밖에 반실업자, 유랑농민, 파산한 도시소시민이 1천만 명 이상이었다.¹³⁾ 일례로 50년대 후반에는 자신의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매혈을 자주 하다 죽는 경우도 많았다.¹⁴⁾ 당시의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상류층의 자제들이

11)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켄더」, 『대중서사연구』 26, 대중서사학회, 2011, 235쪽.

12) 이에 대한 비난은 당시에도 있었던 듯하다. 박화성은 「고개를 넘으면」의 후기에 서 “이제 대미(大尾)를 거두고 나니 시초부터 “주인공을 특권유산층에서만 택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다”라고 하시던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였다. (「고개를 넘으면」 작자후기, 555쪽)

13) 정승화, 「1950~60년대 한국사회 경제구조 변화와 가족동반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42, 내일을여는역사, 2011, 190쪽.

14) 1955년 한국에는 국립중앙혈액은행과 사립 백병원혈액은행 두 곳이 헌혈을 받고 있었다. 이곳의 취지는 건강하였을 때 피를 뽑아 예치해 두었다가 쇠약해지

모여서 한가한 담소를 나누며 국가의 전력 문제를 논하는 것은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의 곤궁함이 없는 인물들의 등장은 그들이 현실의 궁핍함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서민이거나 하층민이었다면 삶의 문제로 인해 국가나 민족의 문제를 생각할 겨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작가가 특정한 주장을 펴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의도에 맞춰 조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사상도 실상은 매우 추상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들의 걱정이 감상일 뿐이고 국가주의 담론이 허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1950년대 대학생의 삶을 더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취미생활이었다. 당대 청년들의 생활은 외국문화의 유입 덕으로 이국적 취향이 많았다. 비어를 마시고 피케원피스와 개더스커트, 고급 영국제 양복을 입고 보스톤 백을 들며 외국 노래에 맞춰 블루스와 탱고를 쳤다.

특히 춤은 여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미 중 하나였다. 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춤은 배우고 익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드는 고급 취미이다. 사교춤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춤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동

거나 불의의 환절에 걸렸을 때 다시 그 피를 찾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피를 팔고 이것을 의사가 사서 병원의 급한 환자에게 수혈하는 일종의 혈액매매소로 그 의미가 변모하게 된 것이다. 개설 이래 일 년간 이 두 은행에서 취급한 채혈자는 총 5,528명이었으나 애초의 취지대로 피를 예치한 사람은 겨우 1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매혈 희망자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모여들어 자신의 피를 팔기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지경이었고 아침 여섯시부터 피를 팔기위해 은행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서로가 앞에 서기 위해 자리다툼을 해야 했다.(중략) 채혈의 대가는 380g에 이천환 정도였다. 결국 고학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도 계속 헌혈을 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혈액은행을 통해 본 민생고』, 『동아일보』, 1955.06.29)

작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을 연마해야 비로소 능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개를 넘으면」의 주인공들이 추는 춤은 왈츠, 블루스, 트로트, 탱고, 지르박, 룸바까지 다양하다.¹⁵⁾ 그것도 단순히 흥내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춤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 있었다. 이는 그들의 생활에서 댄스를 익히기 위해 쏟는 노력이 상당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당시 대부분 대학생들의 현실은 외국의 문화를 누리고 유흥과 취미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과 의식이 오로지 국가의 발전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설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국가주의적 태도는 당대의 대학생들의 현실이 아니라 단지 박화성의 소설 속 현실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들이 결국 비정치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문화의 유입 속에서 문화적 향유에 취해있는 무이념적 존재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⁶⁾ 청년세대 특히 대학생을 이념적이고 진보적인 존재로 여기게 만든 것은 다분히 의도된 소설적 설정이거나 이데올로기적 왜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신·구 갈등과 사랑의 정치학

「고개를 넘으면」에서 청년들로 표상되는 가치는 기성세대와 늘 충돌하고 있다. 그들이 기성세대와 맞서는 지점은 사랑과 연애에 있어서 감

15) 당시 유행하던 춤으로는 트로트, 부르스, 탱고, 질바, 삼보, 맘보 등 종류가 다양했다. (『동아일보』, 1955. 08.24)

16) 1950년대 후반 가장 정치적인 계급은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들이었다. 4·19 혁명에서도 10대 소년들이 데모를 벌이고 조직폭력배들의 집을 파괴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 (권보드래(2010),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참조)

정의 자유로운 발산이다. 구시대적인 관습에 젖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과 허례허식을 따지려고만 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비교적 솔직하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작가는 청년세대를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소설에서 가장 부정적인 기성세대는 박장훈이다. 그는 결혼 후에도 평소 좋아했던 하숙집 딸인 유금지를 몰래 사랑했으나 유금지가 결혼하자 복수심에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이향실과 잠자리를 가졌었다. 그리고 이향실이 아이를 출산하고 죽자 그 아이를 마치 주운 것처럼 속여 유금지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이 소설의 불행은 결국 우유부단하고 일견 부도덕하기까지 한 박장훈에게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십 년이 지나 유금지의 딸 설희가 아들의 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설희를 주워온 아이라 근본이 없다하며 결혼을 반대하기에 이른다. 박장훈이 자식의 결혼에 이와 같은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자 아들인 철규는 아버지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하고 만다. 설희의 친구 영옥은 아버지 세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자신들과 아버지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가엾기도 한 일세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왜놈들의 무도한 폭정에서 개성을 죽이고 신경을 억눌렀던 슬픈 습성이 남아있는 까닭이 아닐까?

- 「고개를 넘으면」¹⁷⁾

기성세대의 부정적 행태는 그들이 폭압적인 일제 시대를 경험한 까닭에 형성된 비자주적인 습성이 해방 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17) 박화성, 『전집 3』, 342쪽.

영옥의 주장이다. 그에 비하면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솔직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일세들의 잘못을 묘사하는 부분은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선악구도로 몰아감으로써 과거를 부정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때 학생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인 박장훈이 부정적으로 묘사됨으로써 그의 항일 운동이 지니고 있던 가치도 그 의미가 일정부분 퇴색해 버리고 만다. 박장훈이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가 밝혀지고 그의 웅졸한 복수가 불러온 불행한 결과가 드러나면서 그는 그저 한때 철없는 젊은이였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만다. 그의 젊은 시절이 이런 식으로 정의 되면 그가 행한 민족운동도 젊은이의 소영웅주의나 치기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형상화는 결국 과거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은 박장훈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성세대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의학을 전공한 철규는 국가와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기성세대를 바이러스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을 병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영옥은 뺨이 빨강게 상기되어서 흐르는 물처럼 말하다가

“결국 다 참구 사는 거죠 그 ‘바이러스’적인 어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선 우리 같은 젊은애들은 그저 그 어른들과 맞설 힘과 실력을 기르면서 사는 거죠.”

바로 어른스럽게 지문 자답한다.

“어쨌 영옥 씨 말엔 용기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항생물질이 발달돼서 세균적 영역을 침범 정복하듯이 우리들의 올바른 젊은 힘들을 항생물질로 치고 우리의 힘이 확대되고 발달 팽창함으로써 미균적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굳게 가지셔야죠.”

- 「고개를 넘으면」¹⁸⁾

18) 박화성, 『전집 3』, 161쪽.

젊은이들의 비판을 통해 기성세대와 그들의 과거는 청산해야 할 그 무엇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복’이라는 단어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 바이러스의 은유는 ‘국가를 좀먹고 사회를 좀먹고 학원을 좀먹고 가정을 좀먹는 존재’로서 기성세대를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제거되어야 국가가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청산의 역할은 젊은 세대들이 맡아야 한다. 젊은 세대는 순수하고 이성적이며 열정적인 존재들이기에 이를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 박화성 소설에서 청년들이 긍정적 인물들로 그려지는 것은 그들이 순수한 백지의 상태에서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화성의 소설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부도덕함과 거리가 먼 생기발랄하고 순수하며 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청년세대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나 욕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는 소설 「사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이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속으론 옳지 됐다 하면서도 거죽으론 더 생각할 여유를 달라하구 왔네마는 내 말은 벌써 결정되었네. 철공소 하구 이 공장은 어제 왔던 그 사람에게다 우리 애들 앵겨서 일하게 하구 난 제분공장을 맡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노라면 우린 다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을 재단 비슷한 것두 제워지리라고 믿네.”

이혁은 자신이 넘치는 어조로 눈을 화경처럼 빛내면서 힘차게 말하였다.

- 「사랑」¹⁹⁾

19) 박화성, 『전집 4』, 593쪽.

사건의 중심에서 한발 비껴서 있는 이혁은 건강하고 정직하며 실천력이 뛰어난 인물이다. 또한 사리사욕과 부정을 싫어하며 오로지 육체노동을 해서 돈을 벌려한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는 구별된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개인의 행복이 아닌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개인의 윤리를 지닌 존재들이다. 따라서 박화성 소설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국민 만들기의 일환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청년들을 올바른 국민으로 키우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다. 박화성 소설의 인물들이 대부분 대학생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등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대학이란 전문지식만이 아닌 일반교양까지를 배워 얻는 곳이며, 진실한 인간이, 또한 선량한 국민이 되기 위한 인격형성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도장과 같은 곳이다.

- 「삶이 머무는 곳」²⁰⁾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기성세대를 포용하는 휴머니즘적인 인간들이다. 박화성이 청년 세대를 통해 주장하는 것도 결국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아마도 이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처벌하는 것의 무의미함에 대한 작가의 대답일 것이다.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조건 없는 사랑뿐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박화성은 종교의 가르침보다 지성을 사랑과 결합시키고 있다.

20) 박화성, 『전집 20』, 31쪽.

이것은 주인공인 철학도가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기의 은인인 한 가정을 상대로 일어나는 사랑의 역정을 그린 작품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종교적인 명령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수련해 온 학설을 통하여 은원을 초월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고개를 넘으면』과 함께 독자들의 많은 성원과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 「눈보라의 운하」²¹⁾

사랑을 지성과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이 그저 마음만 먹으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의 욕망이 상대를 짓밟고 해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의 감정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사랑은 이러한 현실의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적 판단으로 가장 합리적 결과를 고려해서 나온 행위이다. 즉 어떠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한 행동의 결과가 사랑과 용서인 것이다. 이때의 결과란 한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찾음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인간지존을 부르짖는 철인들의 도덕원리로 본다면 ‘복수’란 그것이 아무리 정당성을 띠었다하더라도 ‘비인간적’이란 말에 지나지 않고 ‘폭력’과 그다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고한 ‘세네카’의 말도 옳고 현대 철학자인 ‘어더랩’의 살인은 죄악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공공생활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살인은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말도 나는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 「사랑」²²⁾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갈등과 복수를 막고 서로에 대한 원한을 사랑

21) 박화성, 『전집 14』, 302쪽.

22) 박화성, 『전집 4』, 543쪽.

으로 풀어야만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꾸준히 훈련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박화성의 소설에서 사랑과 용서의 주체는 흔히 대학생들이다. 고등교육을 받고 지성적인 존재들만이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지적인 교육과 교양의 습득으로 대학생은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은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서 욕망과 원한으로 물든 기성세대와 차별하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대의 담론 구조에서 사랑은 힘없는 피지배계층의 언어일 뿐이다. ‘사랑’을 설파하는 주체는 실상 사랑을 주는 자가 아니라 받아야 할 약자들이었다. 권력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권력이 자주 사용한 단어는 ‘사랑’이 아닌 ‘용서’이다. 그러나 이때 ‘용서’는 용서를 베푸는 의미보다는 무자비한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권력의 행사, 법률의 집행, 사회체제의 유지, 반체제 인사의 처벌 등에 있어서 어떠한 자비도 없는 단호함을 나타내는 데 부가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²³⁾ 그 중에서도 특히 ‘용서 없는’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용서 없는’은 자연스럽게 ‘예외 없는’의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 일반 국민에게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예외를 설정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한 사

23) 이대통령은 삼일 오후 오시 바야흐로 전개되는 십억불 부흥사업에 전국민애국의 총진군을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사리를 위하여 범용하는 자 사형에 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용서 없이 처단할 것을 약속하였다.(『경향신문』, 1953.09.05.)

용서 없이 일제색출

김(金)치안국장은 십육일 밀수범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앞으로 현행범은 물론 과거에 밀수행위를 한 비현행범 또는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당한 자나 신병 등으로 일시 보석된 자등 전반에 걸쳐 일제히 색출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하는 한편 경찰에서 구속검거 취조하여 검찰에 송청한 밀수피의자가 법원 측의 “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례가 있음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고 경찰 측의 불만을 표시하였다.(『동아일보』, 1956.02.17.)

회 내에서 ‘예외’를 설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는 자는 권력뿐인 것이다.²⁴⁾

사회가 혼란하고 분열되어 있을 때 이 분열을 막고 안정을 찾기 위해 제시된 것이 ‘사랑’이다. 권력은 국민들에게 ‘사랑’이라는 가치를 역설하며 사회의 안정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는 민중들에게 요구된 삶의 자세일 뿐 권력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아니었다. 권력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용서’이다. 사랑은 강자와 약자, 지배와 피지배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그에 비하면 ‘용서’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용어이다. 권력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태도는 상당히 위선적이다. 국민은 권력의 무자비한 법집행과 폭력 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에게 사랑으로 대해야만 한다. 이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이다.

4. 우정과 개인주의

국가주의라는 환상과 믿음은 사회의 전 구성원들을 가상의 동일자에 포섭되도록 한다. 이의 반대급부는 비동일자에 대한 처벌과 배제이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 존재는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결국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인 계급 갈등을 부인하고 계급간의 화해와 계급 갈등의 부재, 또는 현실이 무계급사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만 했다.²⁵⁾ 계급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보다 심각하고 중요하지만 국가

24) 「사치품통관일점금지 휴대품특별대우입국자만은 예외인정」, 『동아일보』, 1954.04.08.

「대공금수 예외조항발표」, 『경향신문』, 1956.05.18.

「성가대는 예외 『X마스이브』에 통금해제는 안해」, 『경향신문』, 1958.12.22.

나 민족이 강조되고 국가주의가 강화될수록 계급 문제는 더욱 은폐되기 쉽다.²⁵⁾ 이 은폐를 보다 손쉽게 유지하기 위해 계급적 갈등과 모순을 봉합할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자리 잡는다. 이때 요청되는 가치는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려 사회적 갈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정이다.

‘우정’은 얼핏 서로 다른 계급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를 무시하고 하나가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인다. 가난한 고학생과 부르주아의 자녀가 친구라는 이름하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만이 존재하게 된다.

「별의 오각은 제대로 탄다」의 등장인물인 가난한 경식과 부자 친구의 경제적 현실은 극명하다. 경식은 집안이 가난해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녀야 최종 마감시한에 맞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고학생이지만 그의 친구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하숙방조차 호화롭게 꾸미고 살 수 있는 재력이 집안의 아들이다. 과거라면 이들이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질 만도 하지만 그들에게서 이러한 계급적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일은 멍치를 방바닥에 놓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자그마한 머릿장 하나에 이불이 얹혀 있고 밥상인 듯 보이는 괴상한 책상 하나와 몸집이 큰 윤철이가 차지하고 남은 공간이란 참으로 정일이가 겨우 편안하게 앉을 만한 자리뿐이었다.

‘짜아식, 덩치가 큰 녀석이 다리도 못 뻗고 자겠다. 어쨌건 비참하군.’

25) 김진기, 「반공에 전유된 자유, 혹은 자유주의」,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160쪽.

26) 김한식, 「국가주의와 문학, 신화와 거짓의 위험한 내면화」, 『오늘의 문예비평』 62, 오늘의문예비평, 2005, 143쪽.

“보다시피 방이 이 꼴이라 나 공부 시키신답시고 주인택 안방에서 노상 지내신단다.” 정일은 포장을 풀었다. 네댓 근쯤 되어 보이는 정육과 과자와 실과 등이었다.

- 「팔전구기」²⁷⁾

정일은 형편이 어려운 주인공에게 항상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도움을 준다. 자주 밥을 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종종 정육과 과자, 실과 등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계급이 다른 두 인물들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정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시혜 관계에 대한 인정과 감사는 현실에서의 계급적 모순을 은폐시키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부자의 재산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우정은 이처럼 1950년대에 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법적 권리로 보장해준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고 있기에 자유주의의 기본원리인 입헌주의, 법치주의, 관용 등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²⁸⁾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장려하고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그 성과를 인정해 준다.

자유주의하에서 경쟁과 성공은 최고의 미덕이다. 따라서 가난은 개인의 실패와 무능의 표현으로 간주된다.²⁹⁾ 그러나 이 경쟁이 공정한 것인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차이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의 경

27) 박화성, 『전집 17』, 97쪽.

28) 정용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6, 8쪽.

29) 정용화, 위의 글, 8쪽.

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은 출발점이 다른 상태에서는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럼에도 자유주의는 실패 역시 개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 어떤 대상을 만들지 못한 인간은 이를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잘못이 아닌데.” 윤철의 귓속에 비늘처럼 꽂힌 말이다. 그렇다. 내 잘못은 아니다. 나는 분명코 시험은 잘 치렀다. 일차에도 들었고 이차에도 들었다. 이십 이 명중에서 구술시험으로 십 칠 명을 뽑는데 어찌서 자신 있는 내 성적이 낙제 오명 속에 끼인단 말인가?

- 「팔전구기」³⁰⁾

계급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해지면서 가난한 이들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사회에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을 사회적 체제의 불합리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부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거나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의 능력 범위를 초월한 알 수 없는 우연과 운 또는 초월적 운명의 작용을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개인의 실패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외되고 만다.

우정은 그로 인해 맺어진 인물들을 마치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에 그들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갈 뿐이며 언젠가는 계급적으로 분리될 운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정은 여전히 개인주의를 은폐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 용준은 돌아섰다. 혼자만 버림받은 것 같은 서글픔이 전신에 소름처럼 퍼졌으나, 다음 순간 제 인생에 부여된 의무를 담당

30) 박화성, 『전집 17』, 96쪽.

히 치러 내리라는 흥분 같은 것이 혈관에 돌고 있음을 느꼈다.

- 「별의 오각은 제대로 탄다」³¹⁾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 용준과 부잣집 자제 문규는 서로 다른 목적지에 가는 도중 역에서 우연히 만난다. 용준은 군대에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문규는 파리 유학을 위해 서울로 가는 길이었다. 주인공 용준 역시 유학을 가고 싶어했으나 일찍 아버지를 여윈 탓에 자신의 꿈을 실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이 부유한 친구는 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의 친구들은 자신이 뜻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집이 가난한 용준과 경식은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끝모를 심연 같은 차이 앞에서 주인공은 어떠한 불만도 없이 그저 이별의 아쉬움만을 표현하고 또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신성한 의무처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정은 이처럼 당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빈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를 용인하면서 개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국가로 향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럼에도 우정은 가장 비정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가치로 포장되어 왔던 것이다.

5. 결 론

이상으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국가족주의 담론과 청년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적 시각으로 돌아보았을 때 1950년대는 국가주의 담론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

31) 박화성, 『전집 17』, 48쪽.

지만 현실은 그것을 벗어나려는 다양한 균열과 탈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화성은 소설적 왜곡을 통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독자들에게 강요했다. 또한 신구세대의 갈등을 설정하고 이러한 갈등의 효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을 요구하는 단절의 모습을 보인다. 우정이라는 가치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의 개인주의를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할 뿐이었다. 우정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실패를 부자들에게 책임 전가할 수 없도록 만들고 개인의 실패를 온전히 개인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은밀한 수단이다. 이제 이러한 50년대의 가치관이 196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화성, 『박화성 문학전집』 1~20권, 푸른사상, 2004.
-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 공임순, 『스캔들과 반공국가주의』, 엘피, 2010.
- 김건우, 「1964년의 담론 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26, 대중서사학회, 2011.
- 김진기, 「반공에 전유된 자유, 혹은 자유주의」,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 김한식, 「국가주의와 문학, 신화와 거짓의 위험한 내면화」, 『오늘의 문예비평』 62, 오늘의문예비평, 2005.
- 박종철, 「남북한의 산업화전략-냉전과 체제경쟁의 정치경제, 1950년대~1960년대-」, 『한국정치학회보』 29, 한국정치학회, 1996.
- 박태균, 「1950년대 경제 개발론 연구」, 『사회와역사』 61, 한국사회사학회, 2002.
- 전재호, 「세계화 시대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권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2.

- 정미경, 「1950년대 ‘자유부인’의 성정치」, 『여/성이론』 6, 여이연, 2002.
- 정승화, 「1950~60년대 한국사회 경제구조 변화와 가족동반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42, 내일을여는역사, 2011.
- 정용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6.
- 조희연,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004.
-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회』 53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9.
- 최윤정, 「교과서 속의 어린이상과 국가」,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 한경희, 「종군시에 나타난 국가주의의 시선-김종문 『벽』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이 논문은 2012년 8월 2일에 투고되어 2012년 8월 13일에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2년 8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1950년대 국가주의 담론과 청년문화

- 박화성 소설 「고개를 넘으면」을 중심으로 -

최 창 근

박화성은 1903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여성 소설가로 다수의 장·단편 소설을 쓰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작가로 성장한다. 특히 그의 소설은 일제 시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들의 고난과 궁핍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박화성의 소설은 그 성격이 크게 변하는데 그중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이데올로기와 계급갈등의 약화이다. 박화성이 대중 소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이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았으면서 한편으로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는 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싹트기 시작한 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는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공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가치를 추동하는 사상이 바로 국가주의이다. 박화성의 소설에서도 이 국가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때 동반자작가였으며 아나키즘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했었던 박화성의 변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 차원을 떠나 당대 사회의 제반여건이 반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 박화성 소설이 지니고 있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담론형성 과정과 특성을 분석해 그 안에 들어있는 시대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나아가 대학생의 형상화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함께 분석하려 한다.

주제어: 이데올로기, 계급갈등, 1950년대 후반, 국가주의, 담론, 대학생

<Abstract>

Discourse of Nationalism and Youth Culture of the 1950's

Choi, Changgeun

Park hwa-seong born in Mokpo at 1903 became a enthusiastic woman writer by composing the short & full-length novels. Especially she truly has figured the people as laborers and described their suffering and poverty under Japanese colonization. But characteristics of her novels are notably changed after the liberation(1945). Also there is the interesting phenomenon that Ideology and Class-conflict has been much weakened more than 1945: the backgrounds and characters of her novels are usually the family of middle class in Seoul or that of upper classes. So it has been outstandingly increasing the occasions that characters in novels should protected their social value instead of the class conflicts & ideological confrontations.

It was 1950s when Park hwa-seong actively published the popular novels. At this time, there were lots of attempts to heal the scar of Korean War and prepare the new future by Korean republic. It was natural for nation to take step for the growth & development of future to exert our people's efforts to share the concern. That's nationalism to attract people to such a virtue and victim. In Park's novels, this national value is exposed stronger.

This thesis aims for looking for the changes of our social ideology and discourse through the life of park whom was a Anarchist and also once a fellow traveller. And we must search for the change and process of that time's diversified social conditions, not merely only a individual experience, and find out the meaning

of park's novels. Further more we will analyze the character of university students in her novels and compare it with those of that time for finding out the value of its ideologic meaning.

Key words: Ideology, Class-conflict, In the late 1950s, Nationalism, Discourse, University students.